

20대 남녀의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상은 · 이소영*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 of Wearing Hanbok

Sang-Eun Jung · So-Young L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17. 7. 18 접수; 2017. 9. 3 수정; 2017. 9. 6 채택)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d the values and awareness of Koreans in 20s regarding Hanbok, the traditional clothing of Korea, and proposed an approach to promote the traditional clothing culture. The subject of the survey were male and female Koreans in their 20s who wear modern street clothes in places people frequently visit inclu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do as well as those who wear Hanbok in Seoul and Jeonju, Jeollabuk-do.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the survey, Koreans in their 20s rented Hanok rather than buying it. The respondents wore Hanbok for events, festivals or national holidays or while travelling. Elements to improve in Hanbok rental services were designs, materials, washing and stains. The decision factors for renting Hanbok were 'personal tendency' and 'advice from an expert.' While Koreans in their 20s had a positive awareness of Hanbok, they thought it was difficult to buy, rent and put on Hanbok and that it was not comfortable to wear. There was not sufficient opportunity and means to wear Hanbok due to insufficient accessories or shoes to match.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following approach was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lothing culture. First of all, develop traditional clothing designers who can satisfy the personalities of Koreans in their 20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xperience-focused and participatory programs that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regarding traditional clothing to pass down this tradi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that enables the Koreans in their 20s to easily wear Hanbok by popularizing Hanbok.

Key Words: Traditional Hanbok(전통한복), Hanbok(한복), New Hanbok(신한복), Hanbok activation(한복 활성화), Hanbok trend(한복 유행)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Lee

Tel. +822,2049,6353 Fax, +822,444,1058

E-mail : so8404@konkuk.ac.kr

I. 서론

한복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최근 20대 사이에서는 한복을 착용하고 여행을 하거나 생활하는 사진 등을 SNS를 통하여 게시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음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복이라는 우리나라 전통복식이 사극에 나오는 옷, 입기 불편한 옷, 행사에 입는 옷 등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개성을 드러내는 의복으로써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를 기본으로 한 콘텐츠개발은 현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윤양노, 2012), 우리나라의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형성되어지고, 여러 한복 관련 행사를 통하여 20대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심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개화가 이후부터 현대까지 한복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개화기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신여성이 생겨남으로써, 한복이 근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신문화 건설, 실력 양성과 정신개조, 민족개조' 등의 구호를 내건 문화운동을 펼쳤다. 이 중 '여성 의제 개혁'을 통하여 장옷과 쓰개치마 착용을 금지하였다. 이후 양산 등으로 대체되면서 장옷과 쓰개치마는 사라지게 되었다. 1930년대부터는 양장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군국주의를 강화시켜 전쟁에 용이한 기본적인 기능과 경제성만을 강조한 복식인 표준복을 제정하였다. 이때에 전쟁으로 인하여 여성들에게는 간단복을 보급하였다. 6.25전쟁 이후에는 의료(衣料)의 부족으로 인하여 의복을 제대로 갖추어 착용하지 못하였다. 1950년대부터는 전시생활개선법(국가기록원, 1951)을 제정하였는데, 정신무장을 하여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그 중 시행세칙(二)의 "전시의생활"은 외래품 배격과 허영심을 배격하자는 복장의 착용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신생활 운동이 전개되어 국민생활복, 새생활복, 표준간소복과 같은 복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혼란 중에도 1954년에는 최초로 한복

패션쇼가 개최되었고(황의숙, 1995), 이 시기에는 한복과 양복을 혼용하였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의 일부로 직물생산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전통복식 실용화를 위한 한복개량운동이 계속되었으며, 정부에서 개량한복 착용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전통미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보편화되지는 못하였으며 다양한 직물들로 한복을 제작하여 착용하였다.

1980년대는 1984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스포츠경기를 개최하여,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방안으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복은 이미 평상복이 아닌 예복으로 착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장식성이 화려하고 과한 실루엣의 한복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는 더욱 산업화가 가중되고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한복을 생활에 편리하도록 변형하고자 하는 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으나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실하였다는 여론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며(조효숙 외, 1998), '개량한복'의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생활한복'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1995년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의 날을 맞아 '한복 입는 날'을 제정하였으며, IMF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용적인 생활한복이 선호되었고 한복을 맞추어 입는다는 개념에서 대여하여 입는다는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후 2000년대부터 한류가 시작되면서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008년부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스타일(韓-style) 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문화에 대해 국내외 홍보가 활성화 되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담, 서울 G20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국제적 정상회의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격상시키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국내에서는 8월 한 스타일 박람회와 10월 한복사랑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국외에서는 일본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 등에서 한 스타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소개하였다. 그 다음해인 2009년에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한 스타일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국내에서 '2010 대한민국 한국페스티벌'과 12월 '한 스타일 박람회'를 개최하여 한복과 관련된

〈표 1〉 설문지의 구성

설문항목	내용
인구통계학적 문항 (4문항)	성별, 연령, 거주지, 전공계열
한복 착용실태 (7문항)	한복의 소장 여부(1), 한복의 대여 유무(1), 연간 한복 착용 빈도(1), 한복 착용 태도(2), 한복 대여점에 대한 불만족(1)
한복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 (6문항)	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식 장소(2), 한복 착용에 대한 개인적 생각(2), 기대 착용자(2),
SNS활용 및 한복정보인식 (8문항)	SNS 사용유무(1), 한복에 대한 게시물 인식 실태(3), 한복에 대한 정보습득(3), 자유응답식(1)
한복 착용방법 및 예절법(5문항)	한복 착용방법과 착용순서(2), 공수의 위치(1)
착용 한복에 대한 정보(7문항)	한복 착용 권장 여부(2), 착용한복에 대한 정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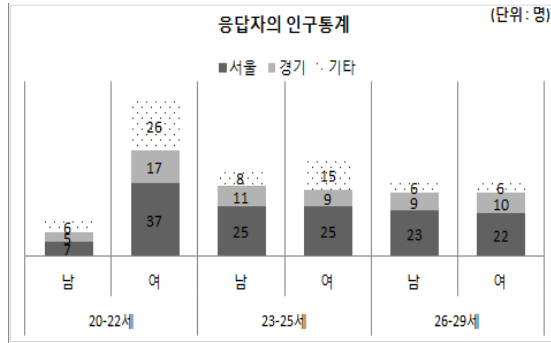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전통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제정하였다.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복진흥센터를 설립하여 한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한복 입는 날’에 한복전시회와 패션쇼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적인 생활한복인 ‘신한복 프로젝트’를 통하여 신진디자이너 발굴과 패션쇼 등을 개최하여 한복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외의 폭 넓은 한복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20대의 한복 착용 활성화에 대한 발전과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 및 시사점제시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대의 한복 착용에 대한 관심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한복착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의 한복에 대한 인식정도와 관심도, 착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20대의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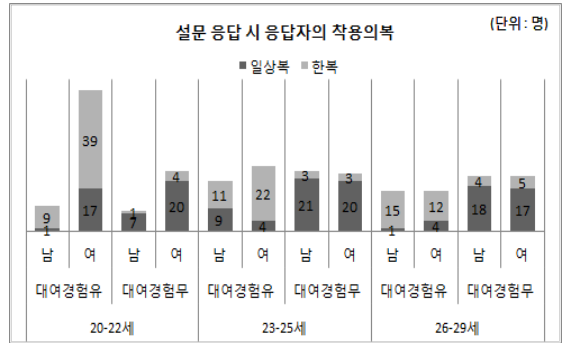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의 기초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조효숙 외, 1998; 최선형 외, 1998; 문화체육관광부, 2007; 조우현 외, 2009)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인구통계학적 문항, 한복 착용실태, 한복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 SNS활용 정도 및 한복 정보 인

식, 한복 착용방법 및 예절 인식 총 30문항이며, 추가로 착용 한복에 대한 정보를 자유응답식 문항으로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유행에 민감하며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생성하게 될 연령대인 20대로 하였으며 2016년 10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의 내용 중에는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다중으로 응답한 문항도 있으며 무응답 설문지도 통계에 포함시켰다. 한복 착용 경험 및 대여 경험 유무, 현재의 한복 착용 여부에 따라 한복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문대상자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도권 및 충청도 지역의 대학 도서관, 카페, 영화관 등의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상복을 착용하고 있는 20대 남녀 151명과 서울지역의 경복궁, 인사동, 북촌 및 전라북도 전주지역의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있는 20대 남녀 132명 등 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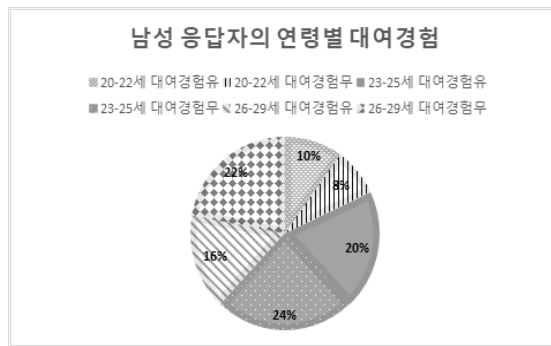
설문대상자의 한복착용 기준은 ‘경복궁의 관람 안내 중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준하였으며 이들에게는 기본 설문 문항 외에 한복의 권장 여부, 착용한복의 소장이나 대여 여부, 착용한복 선택 이유, 착용한복 내 속옷 및 장신구 종류 등에 관한 자유응답식 질문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은 수거한 설문지 283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한 267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Window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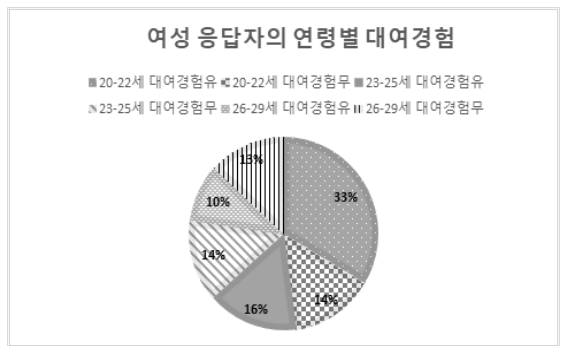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인구 통계 분석 결과



〈그림 2〉 설문 응답 시 응답자의 착용의복



〈그림 3〉 남성 응답자의 연령별 대여경험



〈그림 4〉 여성 응답자의 연령별 대여경험

Ⅲ. 조사 분석 결과

20대의 한복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지, 성별, 연령, 전공계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으나 거주지와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응답자의 한복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가치관을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대여경험의 유무에 따라 추가 분류하였으며, 응답자의 설문지 작성 시 착용의복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상복을 착용한 응답자는 '일상복 착용자', 서울지역 고궁과 전주지역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착용한 응답자는 '한복 착용자'라고 명명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응답자는 총 267명으로 남성 100명(37.5%), 여성 167명(62.5%)으로 조

사되었다. 그 중 〈그림 2〉와 같이 일상복 착용자는 139명(52.1%)으로 남성 57명(41.0%), 여성 82명(59.0%)이었으며, 한복 착용자는 128명(47.9%)으로 남성 43명(33.6%), 여성 85명(66.4%)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설문인원이 1.6배 많으며, 한복 착용자에 비하여 일상복 착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복이 일상복이 아닌 특수복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의 한복대여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그림 3〉, 〈그림 4〉와 같다. 20대 남녀 144명(53.9%)이 한복대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100명 중 46명(46.0%), 여성 167명 중 98명(58.7%)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일상복 착용자 남성 57명 중 11명(19.3%), 여성 82명 중 25명(30.5%), 한복 착용자 남성 43명 중 35명(81.4%), 여성 85명 중 73명(85.9%)이 대여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22세는 98명(일상복 착용자 45명, 한복 착용자 53명)으로 36.7%, 23-25세는 93명(일상복 착용자 54명, 한복 착용자 39명)으로 34.9%, 26-29세는 76명(일상복 착용자

40명, 한복 착용자 36명)으로 28.4%를 차지하였다. 20대 초반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일상복 착용자는 20대 중반(58.1%)의 비율이, 한복 착용자는 20대 초반(54.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거주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139명(52.1%), 경기지역 61명(23.0%), 기타지역 67명(24.9%)으로 서울지역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일상복 착용자에 대한 설문이 주로 서울 대학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 267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한복 착용자 20-22세 여성집단(39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는 한복 착용자 중 대여경험이 있는 여성이 14.6%, 23-25세는 한복 착용자 중 대여경험이 있는 여성 8.2%, 26-29세는 일상복 착용자 중 대여경험이 없는 여성이 6.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일상복 착용자에 비해 한복 착용자의 대여경험이 높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대여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한복 착용 실태

20대의 한복 착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복의 소장 여부, 연간 한복 착용 빈도, 한복 착용 태도, 한복 대여점에 대한 불만족을 성별, 연령,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20대 남녀의 한복 소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 <그림 5>와 같다.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208명(77.9%)이 한복을 소장하지 않으며, 59명(22.1%)이 1벌-3벌 이상 소장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장한다고 응답한 20대 남녀 중 한복을 1벌 소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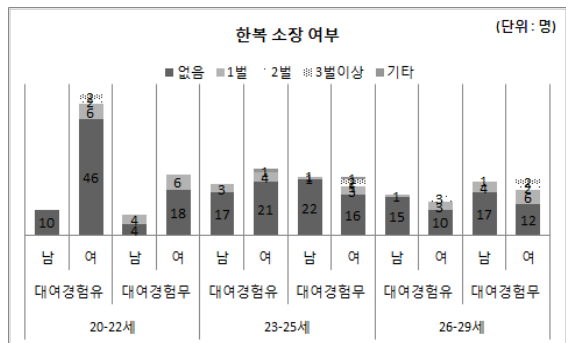
비율은 41명(15.0%), 2벌 소장하는 비율은 10명(3.9%), 3벌 이상은 6명(2.4%)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남녀 응답자 중 20-22세, 26-29세 여성이 각각 16명(5.9%)으로 다른 연령, 성별에 비하여 한복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20대 남녀의 한복 소장 별수가 평균 0.7벌로 나타난 본 연구와 평균 0.6벌로 나타난 선행연구(최선행 외, 1998)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한복을 소장하지 않은 비율이 77.9%로 나타난 본 연구와 7.09%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영희, 1999)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대여경험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남녀 144명 중 119명(82.6%)이 한복을 소장하지 않았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있으며 한복을 소장하지 않은 비율이 남성은 46명 중 42명(91.3%), 여성은 98명 중 77명(78.6%)이었다.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남녀 123명 중 89명(72.4%)이 한복을 소장하지 않았으며, 한복 대여경험이 없으며 한복을 소장하지 않은 비율은 남성이 54명 중 43명(79.6%), 여성이 69명 중 46명(65.2%)으로 나타났다.

전체 20대 남녀 267명 중 한복대여경험이 있으며 한복을 1벌 소장하는 비율이 남성은 10명 중 4명(1.5%), 여성은 16명 중 13명(4.9%)이며, 한복대여경험이 없으며 한복을 1벌 소장하는 비율은 남성 10명 중 9명(3.4%), 여성 16명 중 15명(5.6%)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한복을 3벌 이상 소장하는 비율은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여성,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3-25세, 26-29세 여성으로 각각 0.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20대 남녀의 한복 1벌 소장 비율은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경우 3.6배의 차이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

<표 2> 한복 소장 여부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없음	10	4	46	18	17	22	21	16	15	17	10	12	208
1벌	-	4	6	6	3	1	4	3	1	4	3	6	41
2벌	-	-	2	-	-	1	-	1	-	1	3	2	10
3벌이상	-	-	2	-	-	-	-	2	-	-	-	2	6
기타	-	-	-	-	-	-	1	1	-	-	-	-	2
소계	10	8	56	24	20	24	26	23	16	22	16	22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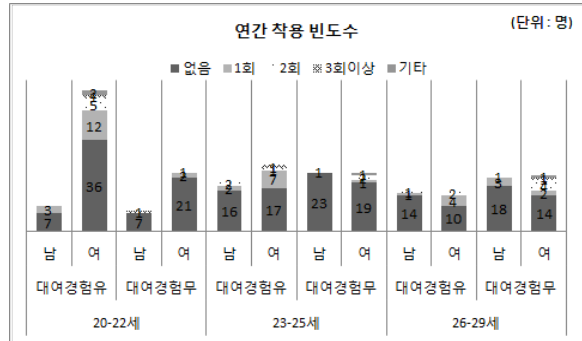


<그림 5> 한복 소장 여부

〈표 3〉 연간 착용 빈도수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없음	7	36	16	17	14	10	202
1회	3	12	2	7	1	3	57
2회	-	5	2	1	1	2	20
3회이상	-	1	-	-	-	-	4
기타	-	2	-	-	1	-	4
소계	10	56	20	26	16	22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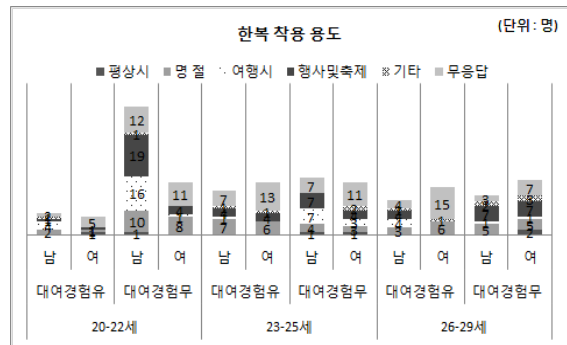


〈그림 6〉 연간 착용 빈도수

〈표 4〉 한복 착용용도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응답)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평상시	-	1	-	1	-	-	2
명절	2	10	7	4	3	6	60
여행시	4	16	1	7	4	1	38
행사및축제	1	19	4	7	4	7	62
기타	1	1	1	1	1	2	13
무응답	2	12	7	11	4	3	97
소계	10	59	20	24	16	18	276



〈그림 7〉 한복 착용용도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여성의 설문인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소장이 약 1.6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한복 소장 비율을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6-29세 여성이 3.8%로 20대 연령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여성 3.6%,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3-25세 여성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여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하여 대여경험이 없는 집단의 한복 소장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복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한복을 대여해서 착용하기 보다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복을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극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로 인하여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소장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대 남녀의 연간 한복 착용 빈도수에 대한 결과는 〈표 3〉, 〈그림 6〉과 같다.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202명(75.7%)이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65명(24.3%)이 연간 1회-3회 이상 착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착용한다고 응답한 20대 중 남성은 15명(15.0%), 여성은 50명(29.9%)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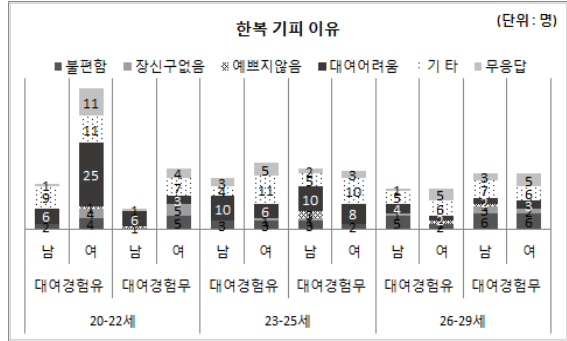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약 1.9배의 차이로 연간 착용 횟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회-3회 이상 한복 착용 빈도수가 22.3%(남성 11.4%, 여성 11.0%)로 나타난 조효숙 외(1998)의 연구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167명의 여성 중 20-22세 23명(13.8%), 전체 100명의 남성 26-29세 6명(6.0%)이 연간 한복 착용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남녀의 연간 평균 한복 착용 빈도수는 1.0회로 연간 평균 한복 착용 빈도수가 1.2회로 나타난 최선형 외(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시기와 현재의 착용 빈도수는 동일하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복에 대한 20대의 인식과 착용 용도가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3-25세 남성(8.7%), 20-22세 여성(20.4%)이 연간 한복 착용 빈도수가 높았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26-29세(남성 7.4%, 여성 11.6%)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연간 빈도수 3회 이상 착용자는 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23-25세 여성 각각 1.0%와 대

〈표 5〉 한복 기피 이유

단위: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중복응답)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불편함	2	-	4	5	3	3	3	2	5	6	2	6	41
장신구없음	-	-	4	5	-	1	1	-	1	3	-	2	17
예쁘지않음	-	1	1	-	-	3	-	-	-	1	1	-	7
대여어려움	6	6	25	3	10	10	6	8	4	2	2	3	85
기타	9	-	11	7	4	5	11	10	5	7	6	6	81
무응답	1	1	11	4	3	2	5	3	1	3	5	5	44
소계	18	8	56	24	20	24	26	23	16	22	16	22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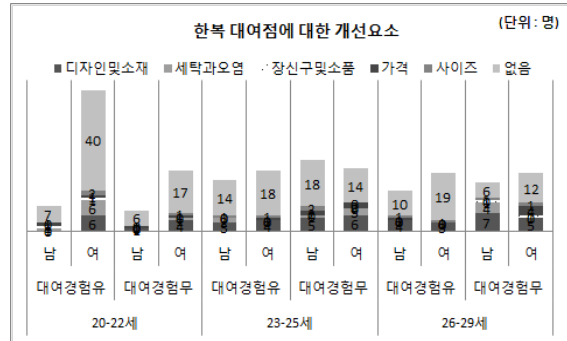


〈그림 8〉 한복 기피 이유

〈표 6〉 한복 대여점에 대한 개선요소

단위: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중복응답)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디자인및소재	-	1	6	4	3	4	5	6	4	3	7	5	48
세탁과오염	1	-	6	1	2	-	1	3	-	-	4	-	18
장신구및소품	1	-	1	-	-	-	-	-	-	-	1	1	4
가격	1	1	1	1	-	1	2	2	1	-	-	4	14
사이즈	-	-	2	1	1	1	2	-	1	1	1	1	11
없음	7	6	40	17	14	18	18	14	10	19	6	12	181
소계	10	8	56	24	20	24	28	25	16	23	19	23	276



〈그림 9〉 한복 대여점에 대한 개선요소

여경험이 없는 20-22세 남성 1.9%, 26-29세 여성 1.5%로 모두 1%대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연간 착용 빈도수가 많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의 착용 빈도수가 높기 나타났으나 2회 이상 착용 빈도수는 대여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20대 남녀의 한복 착용 용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표 4〉, 〈그림 7〉과 같다. 전체 20대 남녀 276개의 한복 착용 용도에 대한 중복응답에서 행사 및 축제(22.6%), 명절(21.5%), 여행(13.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명절, 예복, 제사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난 정인희 외(1997)의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평상복과 외출복으로 착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평상시 착용한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나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복에 대한 인식과 착용용도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는 행사 및 축제(24.8%), 명절(20.8%), 여행(2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3-25세는 명절(21.3%), 행사 및 축제(20.2%), 여행(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26-29세도 명절(23.5%), 행사 및 축제(22.2%), 여행(7.4%)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명절에 착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남성 중 20-22세는 '여행', 23-25세와 26-29세는 '명절'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체 여성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행사 및 축제' (20-22세 13.1%, 23-25세 6.3%, 26-29세 8.0%)항목에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20-22세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기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146명 중 행사 및 축제 42명(28.8%), 여행시 33명(22.6%), 명절 31명(21.2%)순으로 한복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0대 남녀 130명 중에서는 명절 29명(22.3%), 행사 및 축제 20명(15.4%)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여경험의 유무에 따라 한복을 착용하는 용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이 있는 23-25세 여성과 26-29세 남성은 여행과 행사 및 축제, 명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여경험이 없는 20-22세 여성과 23-25세, 26-29세 남성은 명절, 행사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20대 남녀 모두 '행사 및 축제'에 주로 착용하며, 대여경험이 있는 20대는 '여행' 시, 대여경험이 없는 20대는 '명절'에 착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한복 착용 기피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표 5>, <그림 8>과 같다. 전체 20대 남녀 275개의 중복응답에서 한복 착용 기피 이유는 '구매 및 대여의 어려움(30.7%)', '착용방법 및 착용 시 불편함(15.0%)', '한복에 착용 할 장신구나 신발이 없음(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기타 의견으로 '부끄러워서', '입을 장소가 없어서', '착용방법 및 관리가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최선행 외, 1998) 결과 20대의 한복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불편함', '구매의 어려움', '디자인 및 소재의 다양성' 순으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착용 시 불편함'과 '구매 및 대여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 23-25세는 '구매 및 대여의 어려움'을 각각 37.7%, 36.6%로 응답하였고, 26-29세는 '착용방법 및 착용 시 불편함'이 25.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나는 이유는 선행연구 시기에 비하여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한복은 많으나, 여전히 한복 구매가 어려우며, 20대는 한복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살펴보면 20-22세, 23-25세 남성 집단 108명 중 한복기피 이유로 '구매 및 대여의 어려움'이 각각 11.1%, 18.5%였으며, 26-29세 남성 집단에서는 '착용방법 및 착용 시 불편함'이 10.2%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20-22세, 23-25세 집단에서는 '구매 및 대여의 어려움'이 각각 16.8%, 8.4%로 나타났으며, 26-29세 집단에서는 '착용방법 및 착용 시 불편함'이 4.8%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대는 성별과 대여유무에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복 착용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20대는 한복착용을 선호하지만 착용할 수 있는 기회나 경로 등이 부족하고 착용방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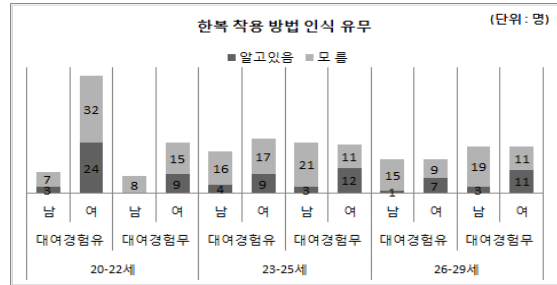
나 구매 및 대여가 용이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한복대여점에 대한 개선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그림 9>와 같다. 한복대여점 개선요소 중복응답 중 '없음(64.9%)'의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요소를 살펴보면 '디자인 및 소재(17.1%)', '세탁과 오염(6.6%)', '가격(5.4%)', '사이즈(4.4%)', '장신구 및 소품(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디자인 및 소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20-22세 남성 집단에서 '가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2세 여성, 23-25세 남녀, 26-29세 남녀가 '디자인 및 소재' 항목에서 높은 비율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한복 구매에 대한 불만족 요인으로 디자인과 색상, 소재의 지적이 나타난 조효숙 외(1998)의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를 통하여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20대 남녀는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하여 대여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요소로 지적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남성만 '디자인 및 소재'를 개선요소로 지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0대 남녀는 약 17% 이상이 '디자인 및 소재'를 개선요소로 지적하였다. '세탁과 오염' 항목에서는 여성의 경우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6-29세 여성, 남성의 경우 대여유무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서 개선요소로 지적하지 않았다.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3-25세 남성과 26-29세 여성, 대여경험이 없는 26-29세 남성에서 가격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여가격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여경험이 없는 23-25세 여성과 대여유무와 관계없이 20-22세 남성이 '사이즈' 항목을 개선요소로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는 20대 초반의 남성이 사이즈에 대하여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남녀, 26-29세 여성만 '장신구 및 소품'을 개선요소로 지적하였으며, 전체 응답 비율도 1.6%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여점에서 한복대여 시 장신구를 같이 대여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장신구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한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

〈표 7〉 한복 착용 방법 인식 유무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알고있음	3	24	4	9	1	7	86
모름	7	32	16	17	15	11	181
소계	10	56	20	26	16	18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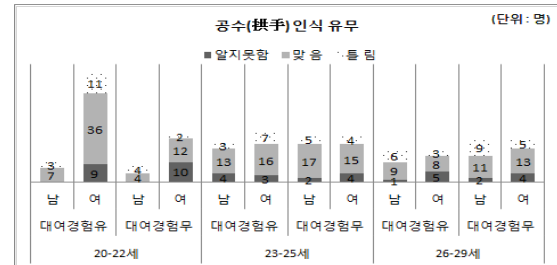


〈그림 10〉 한복 착용 방법 인식 유무

〈표 8〉 공수(拱手) 인식 유무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알지못함	-	9	4	3	1	2	44
맞음	7	36	13	16	9	11	161
틀림	3	11	3	7	6	3	62
소계	10	56	20	26	16	18	267



〈그림 11〉 공수(拱手) 인식 유무

각되며, 가격과 사이즈항목에 비하여 디자인 및 소재 항목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20대의 생활한복 구매 고려요소가 전체적인 분위기, 색상, 원단, 가격의 순으로 나타난 조효숙 외(199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를 통하여 20대는 한복을 대여·구매 시, 가격과 사이즈 보다 외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20대 남녀의 한복 착용 방법 인식 유무를 조사한 결과는 〈표 7〉, 〈그림 10〉과 같다.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86명(32.1%)이 한복 착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5.6%, 여성 26.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대의 약 67% 이상이 한복 착용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 36.7%, 23-25세 28.9%, 26-29세 22.7%의 비율로 한복 착용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한복 착용 방법 인식 비율이 약 4.7배 높게 나타나며,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남녀가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남녀에 비하여 한복 착용 방법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3-25세, 여성은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전 연령이 높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6-29세 남녀의 경우는 한복 착용 방법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대여경험이 없더라도 한복 착용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복 착용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응답한 응답자에게 추가로 한복 착용 방법에 대한 정보 출처를 자유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부모님’과 ‘학교’에서 배웠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님’과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대가 한복 착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으나 그에 따른 착용 방법에 대한 인식은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교육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한복 착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대 남녀의 한복 착용 시 예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수(拱手)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8〉, 〈그림 11〉과 같다. 공수(拱手) 시, 남성은 왼손이 위로, 여성은 오른손을 위로 얹는 예절에 대하여 전체 남녀 267명 중 161명(60.2%)이 공수 시 손의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100명 중 61명(61.0%), 여성 167명 중 100명(59.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살



〈그림 12〉 SNS사용유무 및 한복게시물 인식 정도

해보면 20-22세 60.2%, 22-35세 65.6%, 26-29세 54.0%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 시 손의 위치를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남녀 267명 중 62명(23.2%)이며,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를 차지하였다. 공수 인식에 대하여 대여경험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22세 남녀가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남녀에 비하여 공수 시 손의 위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3-25세, 여성은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경우 공수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6-29세 남녀의 경우 공수 시 손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여경험이 없더라도 공수 시 손의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20대 남녀 응답자의 과반수가 공수에 대한 이해도와 성별에 따른 손의 위치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 시 손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두 자유응답 결과 유아시기에는 '유치원 인사 시'에,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제사 시' 교육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20대의 SNS활용 및 한복정보에 대한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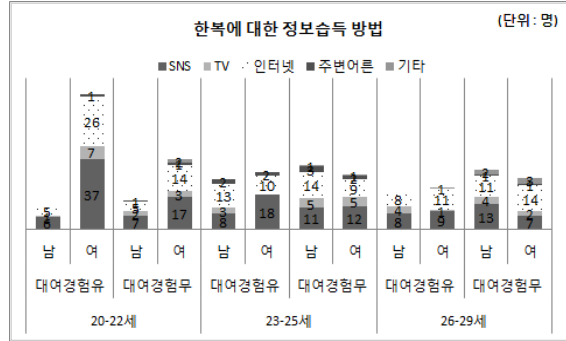
20대의 SNS활용 및 한복정보에 대한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SNS 사용유무, 한복 게시물 인식 정도, 한복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 및 기대정보습득 방법 등을 성별, 연령,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20대의 SNS 사용유무 및 한복게시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242명(90.6%)이 SNS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SNS 사용 비율이 남성 100명 중 87명(87.0%), 여성 167명 중 155명(92.8%)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 96.9%, 23-25세 87.1%, 26-29세 86.8%의 비율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SNS 사용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SNS 사용여부를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대여경험이 있는 20대 남녀는 144명 중 134명(93.1%), 대여경험이 없는 20대

〈표 9〉 한복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중복응답)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SNS	6	7	37	17	8	11	18	12	8	13	9	7	153
TV	1	2	7	3	3	5	-	5	4	4	1	2	37
인터넷	5	5	26	14	13	14	10	9	8	11	11	14	140
주변어른	-	1	1	1	2	3	2	2	-	1	-	1	14
기타	-	-	-	2	-	1	-	1	-	2	1	3	10
소계	12	15	71	37	26	34	30	29	20	31	22	27	354



〈그림 13〉 한복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

남녀는 123명 중 108명(87.8%)의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대여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보이나, 20대의 90% 이상이 SNS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NS상에서의 한복관련 게시물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230명(86.1%)이 SNS상에서의 한복관련 게시글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남성이 100명 중 81명(81.0%), 여성이 167명 중 149명(89.2%)을 차지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 94.9%, 23-25세 81.7%, 26-29세 80.3%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비율이 높으나, 이는 SNS 사용비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SNS상에서의 한복관련 게시물 인식을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144명 중 131명(91.0%), 대여경험이 없는 20대 남녀 123명 중 99명(80.5%)으로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남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한복에 대한 관심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SNS상에서의 한복 게시물 게시의향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189명(70.8%)이 게시할 의향이 있으며, 그 중 남성 100명 중 64명(64.0%), 여성 167명 중 125명(74.9%)으로 여성의 게시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 98명 중 70명(71.4%), 23-25세 93명 중 64명(68.8%), 26-29세 76명 중 55명(72.4%)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게시할 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SNS상에서의 한복 게시물 게시의향에 대하여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144명 중

115명(79.9%),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0대 남녀 123명 중 74명(60.2%)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남녀가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남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2세 여성은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약 2.5배의 차이로 대여경험이 있는 경우 게시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SNS 이외의 한복 게시물 인식정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 남녀 267명 중 153명(57.2%)이 SNS 이외의 곳에서 한복 게시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남성 100명 중 77명(53.5%), 여성 167명 중 95명(56.9%)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 남녀는 144명 중 77명(53.5%),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20대 남녀 123명 중 76명(61.8%)으로 나타났으며, 23-25세, 26-29세 남녀 모두 대여경험이 없는 경우 SNS 이외에서 게시물을 인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세의 경우 남성은 대여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였으며, 여성은 대여경험이 있는 경우 2.1배의 차이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SNS 이외의 게시물 인식정도에 대한 개방형문항의 결과 '포털사이트', '잡지 및 신문', 'TV'의 순이었으며, 그 외 '쇼핑몰광고'와 '조부모님 사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20대는 SNS의 사용률이 높으며, SNS 상에서 한복에 대한 게시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한복관련 게시글을 접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복과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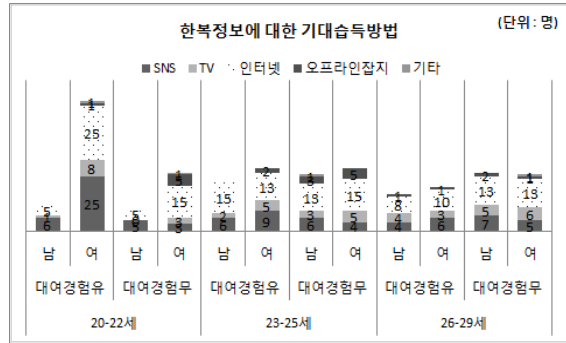
20대의 한복에 대한 정보부족에 대한 유무와 정보습득방법, 기대습득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표 10〉 한복정보에 대한 기대습득 방법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중복 응답)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SNS	6	5	25	3	6	6	9	4	4	7	6	5	86
TV	1	-	8	3	2	3	5	5	4	5	3	6	45
인터넷	5	5	25	15	15	13	13	15	8	13	10	13	150
오프라인잡지	-	-	1	5	-	3	2	5	1	2	1	1	21
기타	-	-	1	1	-	1	-	-	-	-	-	1	4
소계	12	10	60	27	23	26	29	29	17	27	20	26	306

192명(71.9%)이 한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20대의 한복 정보 습득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9〉, 〈그림 13〉과 같다. 전체 20대 남녀 354개의 중복응답에서는 SNS(43.1%), 인터넷(39.4%), TV(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SNS' 항목의 경우 남성 138명 중 53명(38.4%), 여성 216명 중 100명(46.3%), '인터넷' 항목의 경우 남성 56명(40.6%), 여성 84명(38.9%), 'TV' 항목은 남성 19명(13.8%), 여성 18명(8.3%)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22세와 23-25세는 SNS, 인터넷, TV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5-26세는 인터넷, SNS, TV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SNS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V' 항목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3-25세 여성은 'TV'를 한복에 대한 정보 습득 창구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어른' 항목의 경우 23-25세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남녀에 비하여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남녀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20-22세 남녀는 한복대여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SNS, 인터넷, TV의 순으로 나타나, 이는 SNS 활용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25세 남성의 경우 대여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터넷, SNS, TV, 주변어른 순으로 나타났으며, 23-25세 여성 집단은 대여경험이 있는 경우 SNS, 인터넷, 주변어른의 순이었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경우 인터넷, SNS, TV, 주변어른의 순으로 정보를 습득한다고 하였다. 26-29세 남녀는 한복대여유무와 관계없이 남성의 경우 SNS, 인터넷, TV 순으로, 여성의 경우 인터넷, SNS, TV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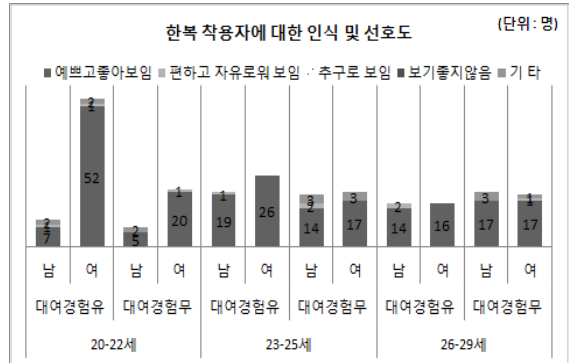
〈그림 14〉 한복정보에 대한 기대습득 방법

으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복에 대한 기대 정보 습득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0〉, 〈그림 14〉와 같다. 전체 20대 남녀 중복응답 306개 중 인터넷(49.0%), SNS(28.2%), TV(1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항목에서는 남성 115명 중 59명(51.3%), 여성 191명 중 91명(47.6%), SNS 항목은 남성 34명(29.7%), 여성 52명(27.2%), TV 항목은 남성 15명(13.0%), 여성 30명(1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여경험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20-22세 남성 중 대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SNS, 인터넷, TV의 순으로, 대여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SNS와 인터넷이 같은 비율이었으며, TV를 한복정보에 대한 기대 습득방법으로 지정한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20-22세 여성 중 대여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SNS와 인터넷, TV, 오프라인 잡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여경험이 없는 집단은 인터넷, 오프라인, SNS와 TV의 순으로 20대 초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 획득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23-25세 남성 중 대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인터넷, SNS, TV의 순으로, 대여경험이 없는 집단은 인터넷, SNS, TV와 오프라인의 순으로 한복 정보 습득을 기대하였다. 23-25세 여성 중 대여경험이 있는 집단은 인터넷, SNS, TV, 오프라인의 순으로, 대여경험이 없는 집단은 인터넷, TV와 오프라인, SNS의 순으로 나타났다. 26-29세 남녀는 한복대여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인터넷, SNS, TV, 오프라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한복대여경험이 없는 여성은 인터넷, TV, SNS, 오프라인의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남녀과 대여경험이 없는 남녀 모두 인터넷, SNS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

〈표 11〉 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예쁘고 좋아 보임	7	52	19	26	14	17	224
편하고 자유로워 보임	1	1	1	2	2	-	9
유행의 추구로 보임	-	1	3	5	-	3	18
보기 좋지 않음	-	-	-	-	-	-	0
기 타	2	2	-	3	-	3	16
소 계	10	8	56	24	20	24	267



〈그림 15〉 한복 착용자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인 잡지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20대는 전반적으로 SNS와 인터넷을 통하여 한복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복에 대한 관심유무와 상관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하여 한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4. 한복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 실태

20대의 한복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가치와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궁이나 인사동 또는 한옥마을 등에서 한복을 착용한 사람을 본 경험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총 응답자 267명 중 90.6%가 착용자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착용자를 본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유응답 결과 경복궁(35.2%), 북촌한옥마을(19.9%), 인사동(13.1%), 전주한옥마을(11.6%)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장소로는 한국민속촌, 삼청동, 광화문시청거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복 입는 거리 조성에 관한 문항으로 한복 입는 거리 조성 시 희망 지역을 자유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인사동(18.3%)과 고궁(12.2%), 북촌 한옥마을(8.0%), 전주 한옥마을(4.5%)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서울은 강남(2.9%), 이태원(1.9%), 명동(1.2%), 잠실(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으로는 제주도,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응답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대의 한복 착용 희망 지역이 광범위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복 착용자에 대한 20대의 선호도 설문 결과는 〈표 11〉, 〈그림 15〉와 같다. 전체 남녀 응답자 267명 중 224명(83.6%)이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였으며, '보기 좋지 않음'을 지적한 응답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대는 한복 착용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남녀 144명 중 134명(93.0%)이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남성 46명 중 40명(87.0%), 여성 98명 중 94명(95.9%)로 나타났다. 대여경험이 없는 남녀의 경우 123명 중 90명(73.2%)이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 중 남성 54명 중 36명(66.7%), 여성 69명 중 54명(78.3.0%)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복을 착용하는 이유로 '우리나라 고유의 옷이라서', '품위 있고 아름다워서'로 응답이 나온 권수에 외(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시대와 관계없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유행의 추구로 보인다는 응답은 전체 남녀 267명 중 18명(6.8%)으로 대여경험이 있는 남녀는 144명 중 1명(0.7%), 대여경험이 없는 남녀는 123명 중 17명(13.8%)으로 대여경험이 없는 20대 남녀는 한복 착용자가 유행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로는 '행사로 인하여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대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한복 착용을 여전히 불편해 보인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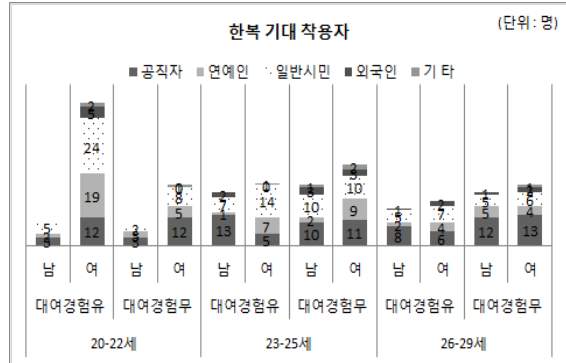
20대의 한복에 대한 선호도 중 한복을 착용하길 희망하는 기대 착용자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표 12〉, 〈그림 16〉과 같다. 전체 301개의 중

〈표 12〉 한복 기대 착용자

단위 : 명

연령/ 성별/ 대여경험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중복응답)						
	남	여	남	여	남	여							
	유	무	유	무	유	무							
공직자	3	3	12	12	13	10	5	11	8	12	6	13	108
연예인	2	3	19	5	1	2	7	9	2	5	4	4	63
일반시민	5	2	24	8	7	10	14	10	5	5	7	6	103
외국인	-	-	5	-	2	3	-	3	1	1	2	2	19
기 타	-	-	2	1	-	1	1	2	-	-	-	1	8
소 계	10	8	62	26	23	26	27	35	16	23	19	26	301

복응답 중 공직자가 108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일반시민 103명(34.2%), 연예인 63명(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여경험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중복응답 157명 중 일반시민 62명(39.5%), 공직자 47명(29.9%), 연예인 35명(2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여경험이 없는 남녀 중복응답 144명의 경우 공직자 61명(42.4%), 일반시민 41명(28.5%), 연예인 28명(19.4%)의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남녀 중 대여경험이 있는 남성 집단 49명 중 한복 기대 착용자로 공직자 24명(49.0%), 일반시민 17명(34.7%), 연예인 5명(10.2%)의 순으로, 여성 집단에서는 108명 중 일반시민 45명(41.7%), 연예인 30명(27.8%), 공직자 23명(21.3%)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이 없는 남성 57명 중 공직자 25명(43.9%), 일반시민 17명(19.8%), 연예인 10명(17.5%)의 순이며, 여성 집단에서는 87명 중 공직자 36명(41.4%), 일반시민 24명(27.6%), 연예인 18명(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남성은 대여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착용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으며, 대여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일반시민'을 기대착용자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나, 대여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공직자'를 기대착용자로 선택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여경험이 있는 20대 여성이 '일반시민'의 한복 착용을 기대하는 이유는 본인의 한복 착용에 대한 욕구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 남녀 중 대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20-22세 집단과 23-25세 집단에서는 기대착용자를 '일반시민'이라



〈그림 16〉 한복 기대 착용자

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26-29세 집단에서는 '공직자'를 기대착용자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여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공직자'를 기대 착용자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대여경험이 있는 20대 초·중반의 남녀는 기대 착용자로 '일반시민'을 선택하였으며, 한복대여경험이 있는 20대 후반 남녀와 대여경험이 없는 20대 남녀는 '공직자'를 기대착용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대착용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한 자유응답 설문 결과, 공직자, 연예인, 일반시민이 대중화에 기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될수록 공직자가 타의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한복의 기대착용자로 선택하였다는 응답과 전통복식 착용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이 착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대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직자가 한복을 착용하여 대중화에 기여하기를 원하며, 일반시민들이 한복 착용에 이질감이 없이 자유로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한복착용 응답자의 한복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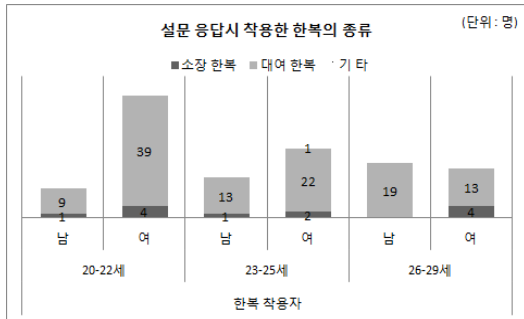
한복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유 응답식 설문 결과는 〈표 13〉,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전체 한복 착용 남녀 응답자 128명 중 115명(89.8%)이 대여한 한복이라고 응답하였고, 소장한복 12명(9.4%)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에게 한복 착용 권유에 대한 설문 결과 87.5%의 착용자가 주변에 권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20대 한복 착용자는 한복 착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

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착용한 한복의 결정 요인으로는 개인의 취향이 85명(66.4%)이었으며, 전문가의 조언은 27명(21.1%)으로 87.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착용한복을 결정할 때 개인의 취향과 전문가의 조언이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친구가 추천해 준 한복을 대여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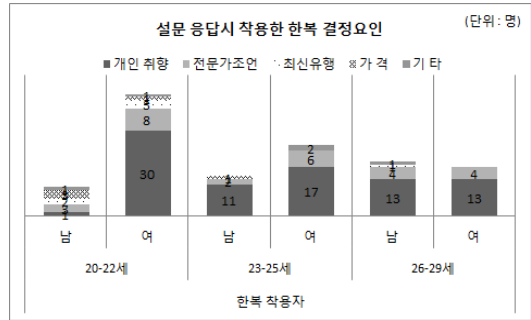
〈표 13〉 착용한복 및 한복 결정 요인 단위 : 명

착용한복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소장한복	1	4	1	2	-	4	2	10	12
대여한복	9	39	13	22	19	13	41	74	115
기타	-	-	-	1	-	-	-	1	1
소 계	10	43	14	25	19	17	43	85	128
	53		39		36				
결정요인	20-22세		23-25세		26-29세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개인취향	1	30	11	17	13	13	25	60	85
전문가조언	3	8	2	6	4	4	9	18	27
최신유행	2	3	-	-	1	-	3	3	6
가 격	3	1	1	-	-	-	4	1	5
기타	1	1	-	2	1	-	2	3	5
소 계	10	43	14	25	19	17	43	85	128
	53		39		36				

20대 중 한복에 적합한 속옷과 신발 착용에 대한 조사 결과, 착용자 모두 한복용 속옷을 따로 착용하지 않고 일상복 위에 한복을 착용하였으며, 신발의 경우에도 남성 1명, 여성 1명 총 2명만이 한복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20대는 한복용 속옷과 신발 착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한복용 속옷과 신발의 개념 부족보다 20대의 활동성을 감안하여 한복을 편하게 착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설문 응답 시 착용한 한복의 종류



〈그림 18〉 설문 응답시 착용한 한복 결정요인

IV. 결론

본 연구는 20대 남녀 한복 착용자와 일상복 착용자에게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20대의 한복 착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복 착용자와 일상복 착용자를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대여경험의 유무와 한복의 소장여부, 한복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복 착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의 78.0%는 한복을 소장하기보다는 주로 대여하여 착용하였으며, 대여경험이 있는 20대는 한복 대여점의 개선요소로 디자인과 소재, 세탁 및 오염을 지적하였다. 전통을 유지하며 20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세탁과 손질이 용이한 일상복 소재의 사용을 통하여 한복 대여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문지 응답 시, 한복을 착용하고 있던 응답자들의 대여결정요인이 ‘개인의 취향’과 ‘전문가의 조언’ 항목에서 87.5%의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20대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복디자이너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대는 한복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착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간 1회 이상 착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4.3%로 낮은 수준이며, 남녀의 한복 착용률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1.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대 남녀가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행사 및 축제, 여행, 명절 시였으며, 한복을 기피하는 이

유로는 구매 및 대여의 어려움, 착용방법 및 착용 시 불편함, 장신구나 신발의 불충분 등 착용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 구매 및 대여의 용이성을 위하여 기성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사이즈와 인체에 적합한 패턴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한복의 구매 및 대여와 한복 상점의 광역화 등으로 20대의 쇼핑 패턴에 알맞은 방법으로 20대의 한복 착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복착용법에 대해 20대 남녀의 67.8%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사 예절인 공수(拱手)에 대해서는 60.3%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한복에 대한 지식과 착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명절이나 행사 등에 한복을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전통복식과 예절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 및 홍보를 유치원과 학교, 가정과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0대의 83.6%가 한복착용자에 대하여 '예쁘고 좋아 보인다'고 응답하여 한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착용에 대한 욕구는 확인 되었으나 착용하기 부끄럽거나 착용할 장소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착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복의 '대중화'와 '타의 모범'을 이유로 한복 기대착용자가 공직자와 연예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복 입는 날'에 대한 활성화와 '한복 입는 거리' 조성, 행사와 공식석상 등에서 공직자 및 연예인의 '한복착용화' 등을 통하여 20대가 한복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대의 90.6%가 SNS를 사용하며 SNS와 인터넷의 한복게시물을 통하여 한복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정보습득방법으로 인터넷과 SNS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SNS'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여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대여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SNS 사용비율은 한복에 대한 관심유무에 관계없이 SNS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를 노출하고 공유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한복을 대여한 경험이 있을수

록 20대의 생활방식과 밀접한 'SNS'에서 한복에 대한 정보습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방적인 한복정보 제공만이 아닌 양방향간의 정보제공과 공유의 형태로 한복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온라인 웹진과 오프라인 매거진 등의 발행을 통해 한복 착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과 충청도, 전주 지역으로 한정되어 우리나라 20대 전체의 한복착용 실태와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일상복 착용자와 한복 착용자의 설문 응답자인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한복 착용 기준을 '경복궁의 관람안내 중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구분이 없었고 설문 문항을 단순 빈도와 추가적 자유응답식 질문으로만 구성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 대상 간 동일한 비율의 응답 인원을 설정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1951). 전시생활개선법. 법률 제225호(1951. 11. 18)로 공포된 문서.
- 권수에, 최종명, 이은경. (1998). 한복의 착용실태와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7(1), 129-138.
- 김선경, 조효숙, 정인희. (1999).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 실태 및 의식 연구. *한복문화*, 2(1), 121-134.
- 김인정. (2016. 5. 16). 고궁 안에 한복이 반. 대한민국정책기자단. 자료검색일 2016. 9. 27, 자료출처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814933>
- 김정현. (2016. 7. 15). 서울 도심 누비는 낮선 얼굴의 한복.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6. 9. 27,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60715/79206978/1>
-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7 한복진흥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 소황옥. (2009). 한복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 한복행사에 관한 제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3), 143-151.
- 유효순, 정미영. (2013). 소비자가 한복구매 및 대여 시 중점을 두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 74-79.
- 윤양노. (2012). 차세대 한복 소통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5(1), 85-95.
- 이영희. (1999). *성인여성의 생활한복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원, 나수임. (2001). 생활한복 소비자의 가치체계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 8(51), 13-24.
- 정인희, 최선형, 강순제. (1997).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 *복식*, 35, 253-164.
- 조우현, 박현정, 김문영, 김용문. (2009). 한복 진흥방안 모색을 위한 한복업체 기초실태분석. *복식*, 59(3), 42-54.
- 조효숙, 김선경, 이희승. (1998).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한복문화*, 1(2), 67-81.
- 최민지, 정대연. (2016. 9. 27). 편하고, 예쁘고 “출근할 때도 입어요”...젊은층에 부는 ‘한복 바람’. *경향신문*. 자료검색일 2016. 9. 27, 자료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72309025&code=940100
- 최선형, 정인희, 강순제. (1998).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 착용 및 구매 실태. *복식*, 37, 33-46.
- 최정철. (2015. 10. 19). 한복의 날을 아십니까?.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6. 11. 08,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mid=sec&sid1=110&oid=020&aid=0002881447>
- 황의숙. (1995).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 26, 289-310.